영주실내수영장

Pattern of Sound

김수영
(주)숨비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53번길 10(가흥동, 영주실내수영장)
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29,930.55m²
건축면적	3,228.88m²
연면적	5,799.75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	13.59m
건폐율	16.76%
용적률	24.3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	㈜숨비건축사사무소(김수영)
설계담당	박유정 · 이지영 · 최이섭 · 오승영
구조설계	㈜하모니엔지닝어링
기계 · 전기설계	㈜하나기연
시공	㈜진영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15. 7.~2016. 6.
시공기간	2016. 10.~2018. 2.
공사비	약 150억 원
건축주	영주시

하늘에서 바라본 영주실내수영장

영주실내수영장 전경

영주실내수영장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새로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기존의 시민운동장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낙후되어 있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한다.

영주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신경섭

©신경섭

상 **여러 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하 **영주실내수영장의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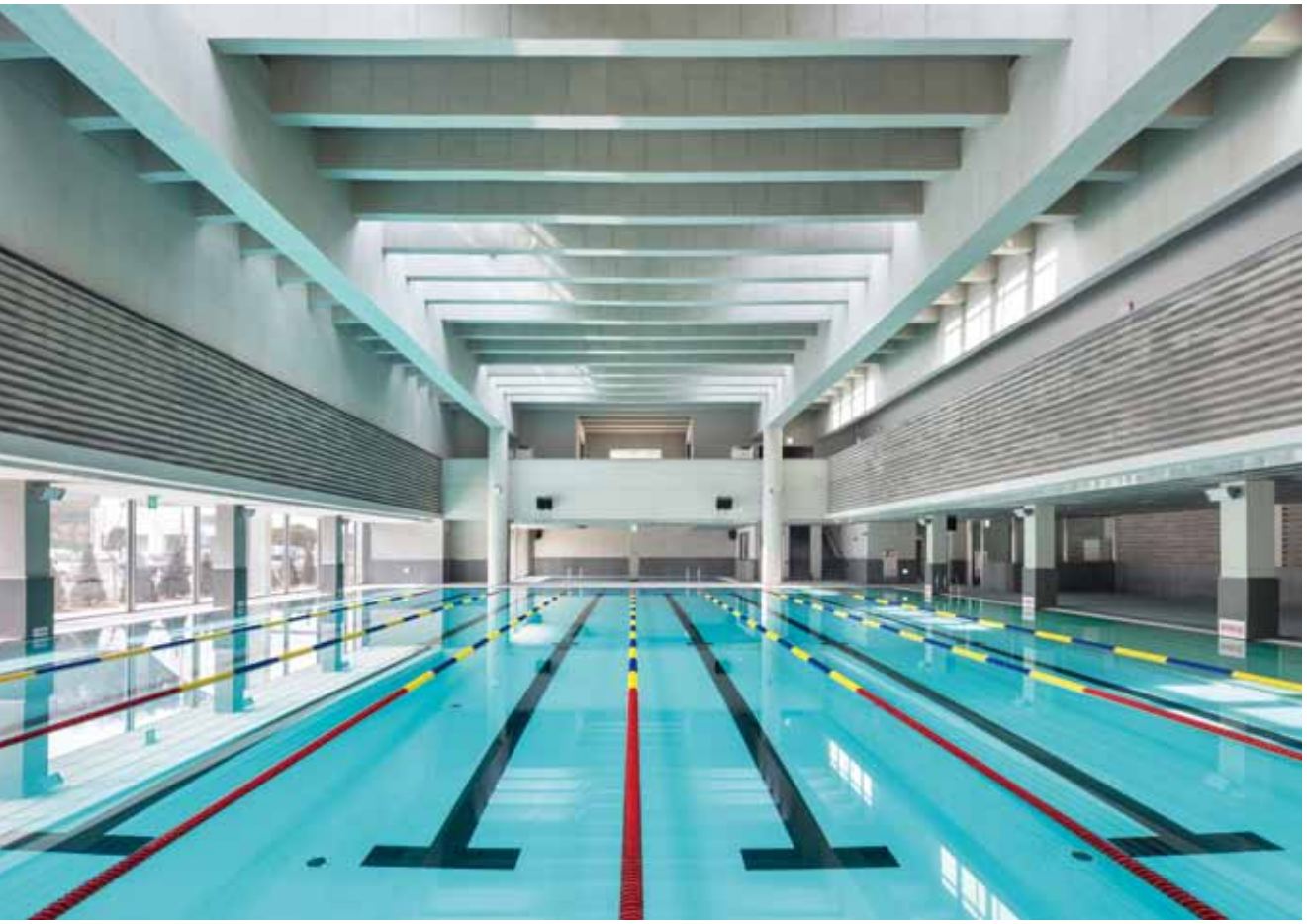
©신경섭

©신경섭

©신경섭

상 **높낮이를 다르게 한 로비 전경**
하·좌 **빛이 들어와 수면과 반응하는 수영장 내부**
하·우 **2층 홀**

무단전재 ©



천창의 빛, 콘크리트 루버, 물결이 만들어내는 리듬

영주실내수영장의
크고 작은 중정은 햇빛이 실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어준다.
간접광은 공간을 화사하게 채워
아름다움을 높인다.
낮은 높이의 다목적 공간에서는
각종 전시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헬스장에서 들어서면 정면의 깊은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밝음 속에서 운동할 수 있다.

©(주)솔비건축사사무소

간접광이 공간을 채운 로비

두꺼운 만남(Thick Encounter)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 영주는 오래전부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도시의 곳곳을 살펴왔다. 이러한 노력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게 모아진 에너지는 다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보완해 가는 독특한 지자체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실내수영장 역시 사설로 운영되는 곳이 한군데 있기는 하였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넘쳐나는 풍요를 감당하지 못해 비대해지고, 아무런 책임 없이 흥청망청 소모해 버리는 여타 대도시와 비교하면, 작은 지방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힘겨운 움직임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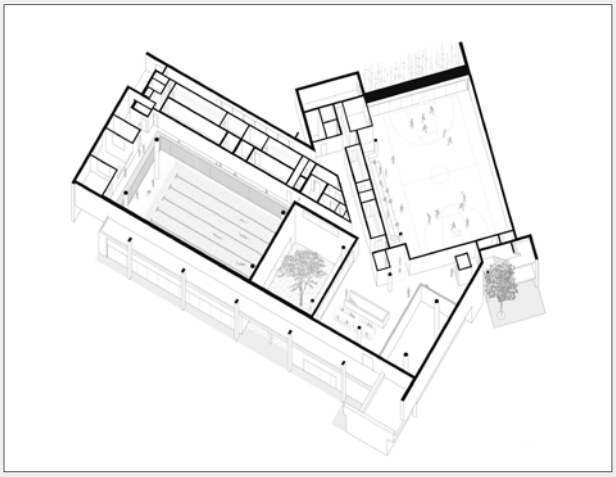
영주실내수영장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새로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기존의 시민운동장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대지의 주변은 볼품없는 3~5층의 소규모 상업건축물이 채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에서 벌어지는 조심스럽고 섬세한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어진 땅은 시민운동장 외곽을 따라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면서 10여m의 옹벽으로 둘러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우리는 이곳에 세워질 건축물은 도시와의 '두꺼운 단절'을 극복하고, 도심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발주된 영주복싱전용연습장과는 발주처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달랐지만,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는 설계공모를 통해 두 건축물이 동일한 건축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영주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련한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칫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건축물들에 큰 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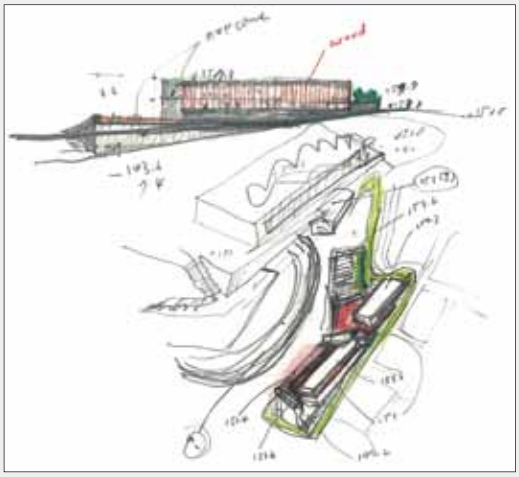
건축물들의 지붕을 따라 걷다 보면 시민운동장과 연결된 중정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수영장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선과 지하층에 있는 복싱전용연습장으로 이어지는 다른 갈래의 동선은 10m 높이의 지붕에서부터 시작해 지하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경계와 건축물이 두껍게 만난다. 더불어 두 건축물 사이에 있는 외부계단은 여러 층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토록 하였다.

©건축사

상 하늘에서 바라본 영주실내수영장
하 영주실내수영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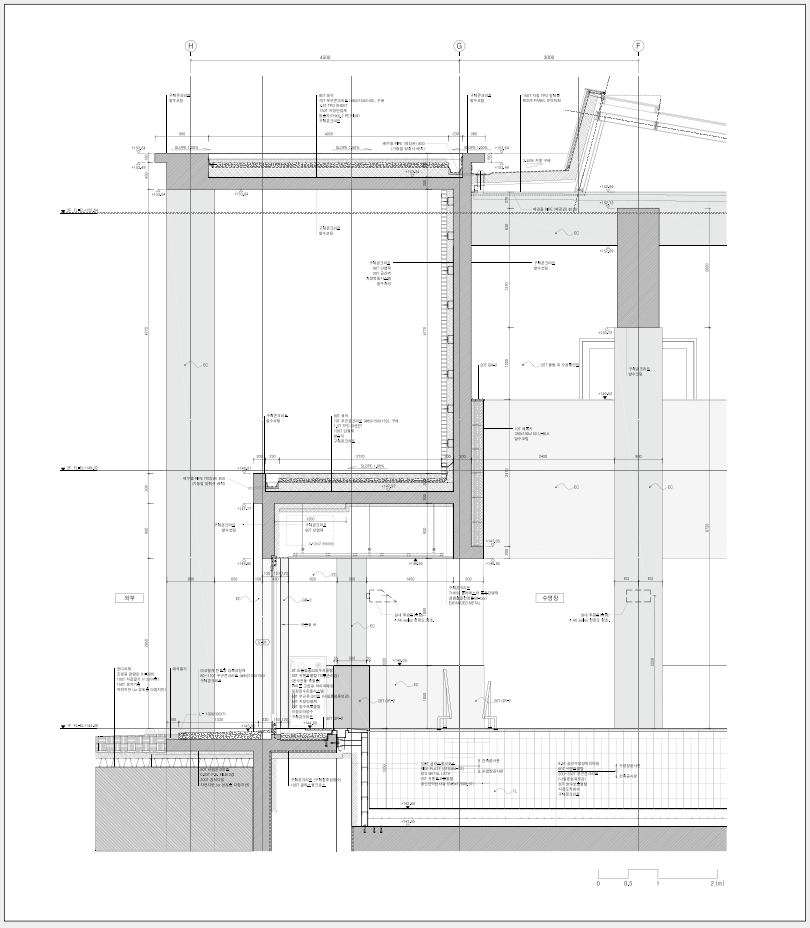


프로그램 액소노메트릭



스케치

ⓒ(주)승비건축사사무소



단면 상세도

ⓒ(주)승비건축사사무소

아쉬운 부분은 '원래 경사지였던 대지에 옹벽을 만드는 공사가 수영장 조성사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도시와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

견고한 구축(Solid Construction)

영주실내수영장은 25m짜리 8개 레인의 수영장과 농구코트가 들어가는 체육관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건축물에서 구조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으려고 하였다. 대공간의 지붕과 나머지 공간의 구조를 분리하고, 각각의 시스템이 위계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였다. 수영장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 모듈은 6m이고, 풀이 있는 공간의 경우 30m의 긴 방향으로 700×2,000mm 크기의 철근 콘크리트 보 두 개를 12m 간격으로 보내고, 그 위에 짧은 방향으로 1.5m마다 300×900mm의 보를 얹혀 놓았다. 이러한 구조시스템은 그 자체가 빛을 조절하는 루버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공모 당시 수영장의 천장은 전체를 유리로 덮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일사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은 직사광선이 수영장 내부로 유입되어 습기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북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진 사다리꼴 모양의 커다란 우물 천창을 여섯 군데에 만들었다. 우물 천창은 빛의 일사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더운 공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조절된 빛은 콘크리트 루버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패턴을 이루고, 물결과 반응하며 매시간 다른 분위기의 수영장 공간을 만들어 낸다.

수영장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과 움직임은 커다란 모델을 만들어 실험하여 그 분위기를 어렴풋하게 상상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만약 비슷한 규모에서 적용된 건축물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기술적인 사실들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설계과정 중 가장 답답한 점은 건축적인 상상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건축가의 전문성은 기술적인 근

©신경섭

상 영주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하 여러 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외부계단

©신경섭

영주실내수영장의 파사드

거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가뜩이나 척박한 건축언어의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기술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두려움은 소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한다. 건축물의 본질적인 부분만 판단하면 각 분야에서 그것을 실체화하기 위해 건축가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외국의 시스템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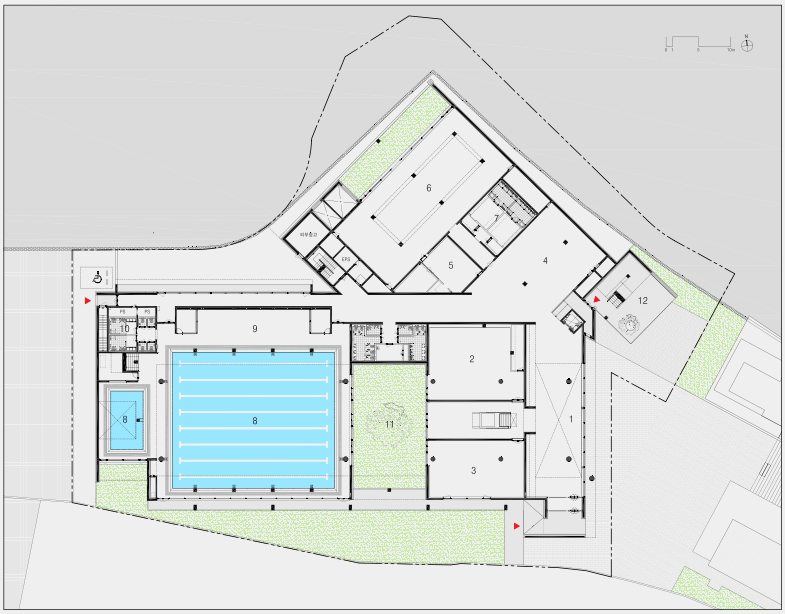
아마도 건축물이 세워지는 프로세스에서 건축가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부실한 협력업체들과 기술력 없는 시공사들은 전문성 없는 건축가들을 재생산할 뿐이다. 그나마 시공 중에서라도 검토된다면 다행스럽겠지만, 기괴한 국가시스템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공사과정 중 기술적 확인은 고사하고 공사가 잘 끝나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안타깝게도 영주실내수영장 공사 역시 기술적인 확인과정은 없었다.

부유하는 경험(Floating Experience)

천창에서 떨어진 빛은 물 표면에 맺히고, 반사되며, 산란한다. 그 아래에 모여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밝다.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 빛은 늘 낯설다.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용될 때 건축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건축물이 잘 작동되고 있을 때이다. 물결을 가르는 소리, 음악 소리, 이용자들의 대화와 울림이 일정 간격으로 놓인 콘크리트 루버를 통과해 물에 비친 그림자의 패턴과 어우러져 리듬을 만든다. 어렴풋하던 의도가 실체화되고, 공간이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때 마음 한쪽에 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그간 겪어온 만감이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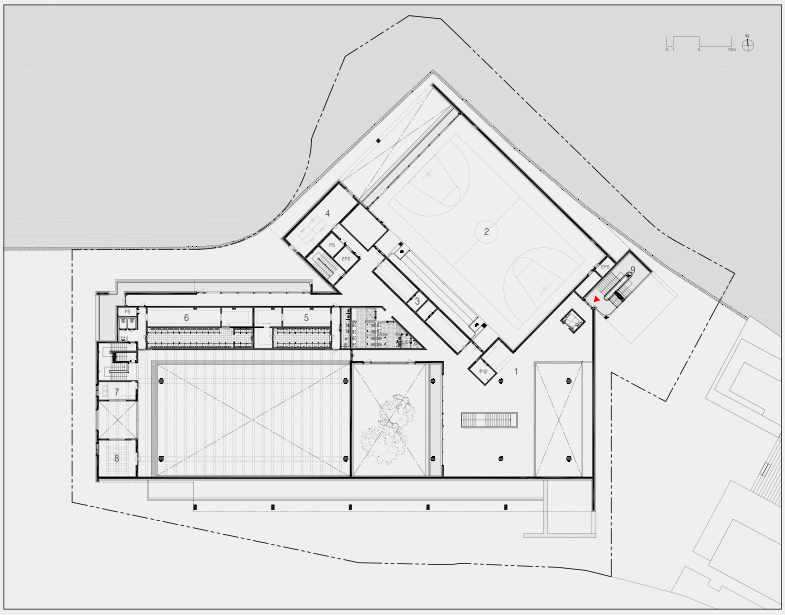
우리는 이용자들이 수영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동안 공간의 밀도를 느끼기를 바랐다. 우리가 말하는 공간의 밀도란 빛과 스케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분위기이다.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명확한 선을 가진 그림자와 흐릿한 음영이 일정 크기의 공간에 드리워질 때 생기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좁고 낮은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장방형으로 동측의 낮은 창과 두 층 높이로 이루어진 길쭉한 로비에 진입한다. 로비는 오전을 제외하고는 늘 일정한 간접광이 공간을 채운다. 이 공간은 잠시 머무르며 수영장·체육관·헬스장·사무실 등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향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주)숨비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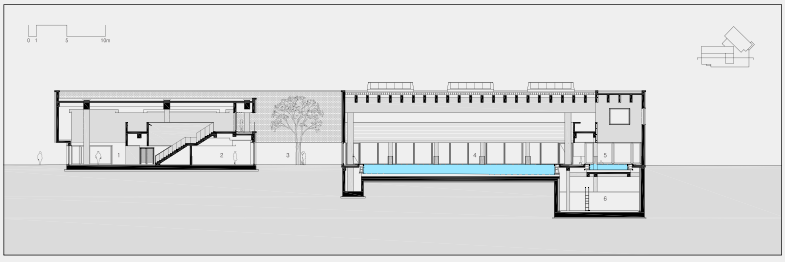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로비
2. 요가룸
3. GX룸
4. 홀
5. 사무실
6. 헬스장
7. 헬스장 샤워/탈의실
8. 수영장-수조
9. 수영장-데크, 강사실
10. 장애인 샤워탈의실
11. 중정
12. 외부계단



2층 평면도

1. 카페테리아
2. 다목적체육관
3. 락커룸/탈의실 (남녀)
4. 관리사무실
5. 수영장-남자탈의실
6. 수영장-여자탈의실
7. 휴게실
8. 교육실
9. 외부계단



단면도

1. 로비
2. 홀
3. 중정
4. 수영장 (성인풀)
5. 수영장 (유아풀)
6. 기계전기실

©신경섭

상 **빛이 들어와 수면과 반응하는 수영장 내부**
하 **2층 홀**

다시 낮은 높이의 다목적 공간에서는 각종 전시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헬스장으로 들어서면 정면의 깊은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밝음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로비의 중앙 안쪽으로 한 켜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양쪽으로 다목적실이 있다. 건너편 복싱전용 연습장의 커다란 외부계단을 시작으로 로비, 계단실, 중정, 수영장을 시각적으로 관통하는 평면구성은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면 중정 건너편으로 1층에 있는 수영장이 보이는 휴식공간이 있다. 이곳 역시 수영장과의 사이에 놓인 커다란 중정이 밝음을 제공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중정을 곳곳에 두어 자주 밝음을 유입시켰다. 중정에 대한 필요는 우리의 평면계획이 두꺼운 겹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밝음과 더불어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다. 2층 홀과 연결된 체육관은 고측창을 통해 빛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남쪽에서 들이치는 직사광선은 배드민턴이나 농구와 같이 공을 필요로 하는 운동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고측창의 유리를 반투명한 재질로 적용하였더라면, 사용성 면에서 좀 더 좋았을 것이다.

영주실내수영장은 탈의실과 풀의 층이 다르다. 계획 당시 풀이 1층에 있는데, 2층에 탈의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러나 우리는 풀로 향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 혹은 즐거움이 탈의실과 풀 사이의 동선에서 느껴지기를 바랐다. 얼핏얼핏 보이는 풀, 다양한 소리들과 수영장 공간으로 떨어지는 빛에 대한 경험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글 때 상쾌함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긴 동선 끝 부분의 계단에서 내려왔을 때 펼쳐지는 수영장 공간의 모습은 건축을 전혀 모르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합적인 체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건축가는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는 일은 매우 복합적이고, 치수를 통한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다. 수만 가지의 기술적인 이해를 토대로 계획한 공간은 시공 과정에서도 건축가의 의도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 현장은 설계자에게 법적인 지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주시의 적극적인 믿음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건축가의 존재감은 없었다. 부실하기만 한 시공사의 기술력, 도면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감리, 분리된

공종으로 인한 책임 없는 공사 등등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공사 과정 내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었다. 그나마 끝까지 현장을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건축가로서의 많은 자책이 남았을 것이다. 모든 건축가가 그렇겠지만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쏟는 에너지가 좀 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1900년대 중·후반기 시대상을 '개발시대', '압축성장' 등의 단어로 표현하곤 한다. 압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집중되었던 에너지들이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뜨거웠던 상황들이 차곡차곡 쌓여 더 나은 방향의 토대가 되기는커녕 매년 보도블록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듯이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이 여물고, 자라나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다. 어쩌면 이런 와중에도 '멀쩡하게 생산되고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늘 찾아왔던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아닐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 보기도 한다.

영주실내수영장은 이렇듯 척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태어났다.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다른 지자체였다면 절대 볼 수 없을 성과는 주민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쓴 분들의 몫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영주시 관련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상하 **천창의 빛, 콘크리트 루버, 물결이 만들어내는 리듬 간접광이 공간을 채운 로비**